

종단 소식

조계종

봉선사 지원당비 제막

경기 남양주 봉선사(주지 말운)는 10월31일 지원당 순재화상 건국유공자 행적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삼학사 적광전 준공법회

강원 동해시 삼학사(주지 원행)는 10월28일 국보 칠불노사나불 점안 및 적광전 준공대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

행자 111명 수계산림 입제

충무원(원장 인곡)은 10월28일 선암사 금강계단에서 제2회 합동독도수계산림 입제식을 봉행했다.

대각국사 942돌 탄신다례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김지암)는 10월29일 대웅전 앞 만세루에서 종단간부 및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각국사 탄신 942주년 탄신다례를 봉행했다.

천대종

전국 학생회교사 연합법회

충무원(원장 운덕)은 1일부터 2일까지 1박2일간 경주 하

일라문에서 전국학생회 지도교사 연합법회를 개최했다. 지도교사 60여명이 참가한 이번 연합법회는 경주 보문단지와 분황사, 안압지 등을 둘러보는 문화탐방과 레크리에이션, 친목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금강불교대 성지순례

금강불교대(학장 이재창)는 1~2일 이틀간 불교학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계성지순례를 실시했다. 신심양양과 올바른 불교관 확립을 위해 실시된 이번 성지순례에서는 김재급선사, 승주 선암사, 양산 통도사, 삼천 해인사를 참배했으며, 상호친목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이에 앞서 금강불교대는 10월26일 불교학과 2학년과 교법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양 낙산사, 고창 선운사 등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대한법회중

남북통일·호국영령천도

전라교구총무원(원장 최복규)은 10월28일 전남 영암 천황사 주차장 광장에서 남북통일 및 호국영령천도법회를 봉행했다.

전라교구 80개 사찰 신도 1천여명이 참가한 이날 법회는 1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천도법회, 2부 폐불탑와 집안식, 3부 축하공연으로 이어졌다.

한국법회중

창종 66주년 기념법회

충무원(원장 김광태)은 10월26일 충무원 법당에서 종단간부와 각 말사 주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종 66주년 기념법회 및 총회를 개최했다. 기념법회에 이어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올해 예산결산 및 내년도 예산심의가 이뤄졌다.

대승종

일오스님 총무원장 재임

대승종 현 총무원장 일오스님이 제6대 총무원장에 연임됐다. 일오스님은 10월 27일 종정 도암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4년 임기를 시작했다. 95년부터 제5대 총무원장직을 수행해온 일오스님은 일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으나, 지난 9월 열린 중앙총회에서 6대 총무원장으로 재선출되자 고사 끝에 총무원장직을 수락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 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총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개신교 인천구치소 불상철거 '억지주장'

인천불교련 "불상을 우상이라니..."

구치소측 "종교협의회 협의 거쳤다"

인천불교연합회(회장 도해스님)는 최근 기독교계의 '인천구치소 불상 철거' 주장과 관련, 10월 30일 오후 로얄관 광화호텔에서 '인천불교 수호 지도자 법회'를 열고 불상 수호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번 법회는 10월 23일 인천기독교총연합회(회장 이철우 목사)가 인천실내체육관에서 목회자 및 신도 등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구치소 불상 철거 기도회'를 가진 뒤 인천구치소에 항의방문을 하는 등 본격적인 압력행사에 나섬에 따라 불교계의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된 것.

일불종교종정 봉혜, 전 중앙승가대학장 승산, 인천불교련 명예회장 법경, 조계종인천시암련 성일, 인천구치소 불교교화위원장 선운스님, 피안사회복지관 언정혜관장과 각 사

암신도회장 등 불교지도자 3백여명은 이날 △타종교에 대한 편견과 아집을 버릴 것 △국가기관을 상대로한 명분없는 종교시위를 중단할 것 △선종종교에 대한 박해를 중단할 것 △불상을 우상으로 묻지 말 것 △종교 이기주의를 청산할 것 등 기독교계에 대한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철거 주장'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석불입상은 지난 10월 초 인천구치소(소장 김춘홍)가 새 건물로 이전하면서 민원실 양쪽에 높이 1.5m 높이의 마리아상과 함께 세운 3.3m의 석가모니부처님상. '구치소 민원실 입구에 불상을 세워 놓은 것은 특정종교만을 위한 것이며, 특히 관공사에 불상을 세워놓은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인천구치소 측은 "불상과 마리아상은 구치소를 신축 이전하면서 종교교화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세운 것으로 특정종교를 위한 것이 아니며, 특히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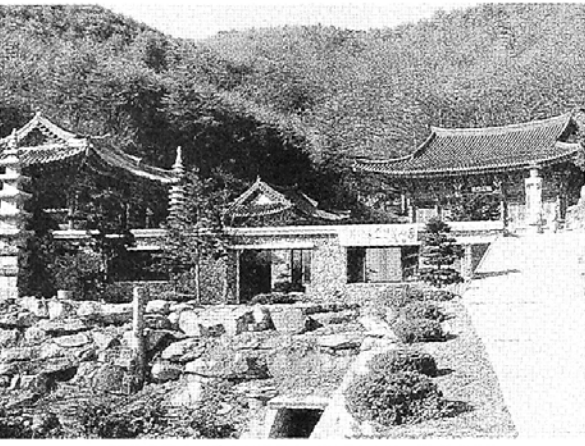


◇인천구치소 내 민원실 주변에 세워진 마리아상과 석가여래조상(오른쪽).

에 불상 15개, 마리아상 22개가 세워져 있는 등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일축했다.

인천불교련 사무총장 홍재스님은 "과거 구치소 내에 지장보살상과 마리아상이 함께 세워져 있다가 10여년전 기독교인 소장이 부임하면서 불상을 땅에 묻어버렸다"면서 "불상의 철거는 전혀 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인천불교련은 기독교계와의 타협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맞대응을 자제하면서 구치소 수호의 의지를 계속 천명키로 했다.

(인천=김재경 기자)



◇대한생활불교회 근본도량으로 개신될 월해사 전경.

속초 월해사 개산

일만불 점안·백고좌 법회

대한생활불교회(이사장 김덕수)는 19일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소재 월해사에서 개산법회 및 백고좌 대법회를 봉행했다.

대한생활불교회 근본도량으로 꾸며질 월해사(舊 구북암)는 창건주 일해스님이 대한생활불교회에 기증한 것. 이에 따라 생활불교회는

이날 개산기념법회식을 비롯 일만불(석불) 점안, 백고좌법회, 정구대학설립추진위원회 발족 등을 실시한다. 이밖에서 생활불교회는 월해사에 국제수련원도 개원할 방침이다.

대한생활불교회 김덕수 이사장은 "국제수련원을 겸한 정규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을 설립해 불교지도자를 양성하여 한국불교를 선양하는 대중교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설립

내년 3월 개원...대학원 7개학과 신설

동국대(총장 송승구)는 10월25일 교육부로부터 특수대학원인 '국제정보대학원'을 신설 인가 받아 내년 3월 개원한다.

국제정보대학원 신설은 국제사회의 변화와 변동을 과학적으로 예측, 설명, 평가해 대변화하는 국제화시대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국제정보대학원의 신설학과는 인문사회계열의 국제해양정책학과와 국제관계학과, 공학계열의 정보보

호학과 등 석사학위과정 3개학과다.

한편 동국대는 98학년도부터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인문사회계열에 정보관리학과, 북한학과와 자연과학계열에 반도체학과를 신설키로 했다.

또 경영대학원에는 선물·금융공학과, 서비스경영학과를 신설하며, 언론정보대학원에 출판잡지학과, 지역개발대학원에 지역정책학과도 각각 신설키로 했다.

노인복지도량 보문사 낙성

10일 아산서...수련원·유치원도 추진

충남 아산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갖춘 사찰이 건립된다. 서울 삼청동 칠보사 부설 보문사(주지 현관)는 10일 대웅전·지장전·복지관 낙성식 및 봉불식을 봉행한다.

충남 아산시 염치면 송정리 일대 5천여평의 부지에 건립된 보문사는 이날 대웅전, 지장전, 누각, 복지관을 낙성한다.

특히 5백여평의 부지에 건립된 보문복지관은 31명을 수용할 수 있는 9~12평 규모의 방, 휴게실, 의류실, 수영장 등을 비롯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불교인 전법대회

전북사업 승가회

전북사업승가회(대표 도영스님·금산사 주지)는 2일 금산사에서 제

8회 전북불교인 전법대회 및 등반대회를 봉행했다.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 모악산을 살리자'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전법대법회, 등반대회, 자연보호운동, 연애인 공연 및 장기자랑 등이 펼쳐졌다.

범어사 복지법인 추진

복지관운영·지원 출판·장학사업도

범어사(주지 성오)가 '사회복지법인 범어사'를 설립하기 위해 관련서류를 10월20일 금정구청에 접수했다.

'사회복지법인 범어사'는 중생구제의 숭고한 대자대비사상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 불교도를 구원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BBS 조사특위 재단감사

불교방송 진상조사 특위(위원장 정대스님)는 10월27일 소위원회를 열고 3일 검찰방문을 시작으로 7일까지 재단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재단감사는 지흥 지만 원화 법일 스님과 공인회계사 4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맡아서 할 계획이다. 이날 소위원회에는 연영 지만 원화 법일스님이 참석했다.

복지관운영·지원 출판·장학사업도

범어사는 관련 단체의 승인이 나는데로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출판 및 장학사업 등을 펼쳐나가게 된다.

'사회복지법인 범어사'의 이사장은 성오스님, 이사는 벽과·선래·홍교·상운스님, 감사는 정만·선재스님이 각각 맡았다.

"오전시간대 포교프로 강화"

BBS 청취자 1500명 조사

불교방송 청취자들은 불교관련 프로그램과 교양교육 프로그램, 불교뉴스 비중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새벽5시부터 낮12시까지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포교 프로그램을 편성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불교방송이 9월24일~29일까지 서울 분사 및 부산 대구 광주 청주 등 지방국이 있는 5개 도시 불교신도 1천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7 불교방송 청취자 성향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

이번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천4백57명 가운데 불교방송 청취자는 76%, 비청취자는 24%였다. 비

청취자들은 비청취 이유에 대해서 무응답이 58%로 가장 많아 이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주파수를 몰라(37%) 재미가 없어서(27%) 다른 방송과 차이가 없어서(5%) 등의 답변도 나왔다. 불교방송 청취 이유는 신앙생활에 도움(51%) 불자로서 불교에 대한 이해 강화(47%) 등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불교방송 프로그램 진행 중 평소 좋

"방송 신앙생활에 도움" 51% "교리 현대적해석 미흡" 39%

아하거나 기억에 남는 두 사람을 묻는 문항에서는 무응답자가 64%로 불교방송을 대표할 만한 진행자의 부재를 드러냈다.

포교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 불교의 현대적 해석 부족(39%) 정적인 진행(19%) 재미가 없다(14%) 등으로 나타나 불교방송이 청취자들의 수준을 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제137차 수련모임 인간완성, 현세해탈, 완전건강 시민참선수련 전문지도 물질명예에 찌든 현대인은 이제 누구나 참선할 때입니다. 선(禪)은 수세기의 경음이 축적된 가장 확고한 정신통일법이며 인간완성법(깨달음)입니다. 참선공부는 인간대면을 평화롭게 하고 외면을 아름답게 하며 건강과 경행이 극심한 현대인에게는 최선의 심신건강법이기도 합니다. 본회는 1981년에 부산 대구에 도장을 개설 명상수행과 도가의학을 함께 지도해왔습니다. 이번에 서울도장을 개원하게 되어 참선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종교공파를 초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수련총합 / 작법, 호흡법, 명상식사법, 도인체조, 단식법 ◆지도자 / 이성담(李星潭) 선생 명상의 스승 평생동안 11년씩, 참선, 생리, 단식으로 일관해 왔으며 도가의학을 집대성 참선명상과 함께 인류의 완전건강법을 지도하고 있다. (저서 33권) ●수련기간 / 3개월('97년 11월 22일(토)~'98년 2월 7일(토)) ●수련일시 / 매주 토요일 오후 6:00~9:00(3시간씩) ●지도방법 / 강의 30% 실참50% 문답20% ●첫 모임 / '97년 11월 22일(토) 오후 6:00 ●신청마감 / '97년 11월 20일(목) 정인 30명 신청순서로 마감 ●신청방법 / 먼저 전화로 신청하시고 첫모임시 수련참가신청서 작성 전화 (02)575-0130~1 ※전화신청은 매주 목·금·토요일 오후 1:00~6:00 사이에만 받습니다. ●강 소 / 본회 서울도장(강남구 포이동 225-1 영풍9D 2층) ※ 포이동 삼호골산 맞은편 평화은행 뒷쪽 대강정기골목으로 20M 전임. 남방사선과 뒷편(전철3호선이동 양재역하차 5분출구이용, 서초사회복지관에서 마을버스를 삼호골산에서 하차) 한국참선명상협회·도가양생학술원 도장 : 서울(02)575-0130/부산(051)501-8335-6/대구(053)742-9194

都園佛教修鍊院 道원불교수련원 지암정사(智庵精舍) 본 수련원은 산세수려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불교전문 수련원으로서 일반 불자, 각 수행단체 및 가족단위의 불자들이 기도, 수련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춰 놓은 도량입니다. 5천여평의 대지에 100여평의 건물과 3천여평의 운동장등을 갖추고 주위에는 산림으로 우거져 있을 뿐 아니라 바로 앞에는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 불자들의 심신수련에 최적의 곳입니다. 법당을 비롯하여 참선 기도할 수 있는 방과 취사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가족단위의 불자들에게는 가장 알맞는 수련원이라고 하겠습니. 또한 수련원 주위에는 이승복 기념관, 이효석의 메밀꽃 필무렵의 무대인 봉평정터, 방아다리 약수, 현대성우 리조트, 삼성히비스크에 스키장, 골프장, 콘도시설이 있으며 오대산 정자사 등과 태기산, 계방산 등이 있어 산행도 할 수 있습니다. 수련을 원하시는 개인, 수행단체, 가족단위 불자들은 언제라도 전화주시고 오시면 친절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곳 수련원은 나이 많은 원로스님들을 무료로 보살펴 드리고 있사오니 서슴치 마시고 오셔서 주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불교수련원 都園佛教修鍊院 계방산 智庵精舍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210의 1번지 院長 性潭 合掌 전화: 0374-32-7464 FAX: 0374-33-7464

토요강좌안내 한국승가대학원에서는 부산·경남지역 불교인을 위한 <법화삼부경> 무료강좌를 개최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 알 림 ● 1. 개강일시 : 11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3시 2. 강의일시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3시 3. 동참자격 : 정법을 알고자 하는 모든 분 4. 모집인원 : 오전·오후 각반 50명 5. 문의전화 : (051)633-6224 · (017)501-8711 6. 강의장소 : 좌천동(오비신호동) 해남한의원 3층 UN·IAEWP·KOREA MONK ACADEMY 한국승가대학원 책임교수 최광영(공덕)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 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금강경, 법구, 각종불서 범종 불자님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船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睦하고 子女教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入試演說의 準備을 위하여 승진·사업변경의 準備을 위하여 만성지병 禱病자의 醫藥의 秘要를 위하여 반야심경은 수지독수 시경준근하여도 神驗한 運轉법사의 반야심경은 최고의 名品, 生命의 외치처입니다. ●반야심경 사경수 특별회원모집 (초심자 환영, 통신도 가능) ●선착순 한정본(眞) ●주문 신청방법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모시본에 속지 마세요.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작가약력 · 서울미술문화상 수상 · 서울미술계 심사위원장(시예) · 문화한국 서법교육회초경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장차미술 대상수상 · 중국 대만 화교청년 공동부 서법학회대회 심사위원장 · 대한민국 20년도 최우수작가상 수상 · 대한민국 현대서예대전 심사위원장 · 대한 국립 고궁박물관 소장 물품(약70만점)조사본 발표 · 고 미술서법학회 회장 · 한국 불교문화예술인 회장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硯會 ☎ (02)242-0331·242-0255 (야) 216-0307